

티모르 딜리팀의

6월 보고서



Index

1. 6월의 일정
2. 6월의 활동
 - : 비자트립 , 피드백 회의
 - : 중간평가
 - : 6월의 아띠클라씨
3. 홈스테이
4. 개인에세이
5. 이 달의 사진전

6월의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비자 트립	3	4	5	6 비자 트립 끝나는 날
7	8	9 중간평가 & 홈스테이	10	11	12 일주간사님 출국	13
14	15 홈스테이 끝나는 날	16	17	18	19	20 동화간사님 출국
21	22	23	24	25	26	27 6월 피드백회의
28	29 센터 휴식	30 센터 휴식				

6월의 활동



비자트립



티모르 팀의 특권은 비자트립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발리 여행을 즐겼다. 몽키 포레스트와 수많은 사원들, 호텔부터 준비한 기념품 가게까지 발리 느낌이 물씬 나는 우붓과 노을이 예쁜 바다를 지닌 쇼핑의 메카, 쿠따까지. 그 동안 티모르의 비싼 물가와 저녁 6시 이후면 자동 외출 금지인 불안한 치안에 투덜거렸었는데, 발리를 여행하면서 저렴한 물가와 밤 늦게까지 놀 수 있는 안전한 치안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

6월의 피드백 회의



6월 셋째 주 토요일, 우리는 피스커피 카페에서 마나 우디스와의 함께 1차 피드백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센터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드백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드백 회의에서 우리는 주로 아띠 클라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독특했던 점 등을 이야기했다. 회의를 통해 마나가 우리 수업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또 많이 도와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수업에 대해 뭐가 걱정되는 지도 들을 수 있었다.

또 6월에 있었던 홈스테이에 대해서도 각자 느낀 것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나 우디스는 대화하는 내내 홈스테이에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가족들은 좋았는지를 계속 물어보셨는데, 덕분에 우리를 걱정하는 마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다.

이번 피드백 회의는 앞으로 각자의 아띠 클라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될 지를 논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남은 한 달간의 센터 활동을 이번 피드백 회의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또 이제까지 아띠클라세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마나와 함께 상의해봄으로써 다시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주간 평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간 평가를 김일주 간사님과 양동화 간사님이 다녀가셨다. 김일주 간사님은 총 4일간 있으셨고 양동화 간사님은 20일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 기간은 발리에서 돌아와서 홈스테이 하는 기간이었다. 숙소에서 진술한 이야기를, 팀에게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이전 기수 보고서를 보니까 항상 홈스테이 기간과 겹쳐서 오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마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센터활동을 오전이나 오후를 쉬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였다. 10일에 발표를 하고 현지 YMCA 간사님들과 한국인 간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설명을 하였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설명을 하는 ppt에 떼뚝을 적고 한국어로 말하였기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생겼고 현지 호스트 기관에서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었다. 한국말이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편해서, 떼뚝어는 조금 서툴러서라는, 중간 평가를 평가로 받아들여서 한국 간사님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등등 심정은 복잡했다. 사실 350ppm부터 중간평가까지 휘몰아 쳐서 하다 보니 지친 감정상태도 한 몫 했다. 양동화 간사님과는 20일까지 개인 면담과 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중간 평가 소감 : Ivo

중간 평가를 하기 전에 내가 가진 마음은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잘한 일들 잘 해왔던 일들도 있었고, 평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매번 간사님들에게 들었지만 간사님들이 보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매번 즐겁지만은 않지만 아이들과 중간 평가 전까지 시점을 본다면 그 자체로 좋았고, 아이들이 Ivo라고 불러줄 때 마다, 자기랑 놀자고 할 때마다, 마을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관심을 보여줄 때마다 그 자체로 좋았다.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피드백 받았으며 관계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았다.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길지 않았으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3월부터 관계라는 벽에 부딪치고 짜증도 나고 슬펐고 점점 악화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센터에서 숙소에서 내 생각해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놀고 생활하고 지냈던 것 같았다.

6월 중순, 중간 평가 이후에 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관계에 관련된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왜 지금의 상황은 이럴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빠르게 지쳤던 것 같다. 소진 되었다는 표현도 조금은 맞는 것 같다. 의미를 찾기 보다 그저 하는 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심지어 센터에서도 기쁘거나 좋다는 것보다 쉬고 싶은 생각만 있었다. 팀원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박살 나고 깨지는데, 내 자신도 지칠 대로 지치고 무슨 센터에서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명분으로 팀원과 활동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고, 상황이 불편해지면서 마음까지 불편해 지기 시작했다. 6월의 오랜 기간을 이렇게 보냈고, 정말 이것이 6월 상황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7월 초에 드는 생각은 "왜 그렇게 빠르게 지쳤을까?"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나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쁜 것만 봤을까?" "나를 믿어준 나와 관련된 다른 주위의 사람들 생각은 하지 못했고 실망과 자책만 했을까?" 이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반드시 와야 될 상황이라면 활동을 마무리 하는 단계의 늦은 타이밍에 와서 끝이 안 좋아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생각 끝에 결국 나와 관련된 나를 믿었던 사람들, 티모르 친구들, 아이들에게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중간평가 이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7월이 오면서 내 스스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5월 보고서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면서 보내고 싶다.

중간 평가 소감 : Beti

울지마

브로콜리 너마저

울지마
네가 울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면
왜 거짓말 같지

울지마
네가 울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뭐라도 힘이 될 수 있게
말해주고 싶은데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말일 뿐이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울지마

왜 잘못하지도 않은 일들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 눈물을 참아내는 건 너의 몫이 아닌데
왜 네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상관해야 하는지
약한 사람은 왜 더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말일 뿐이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울지마

왜 잘못하지도 않은 일들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 눈물을 참아내는 건 너의 몫이 아닌데
왜 네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상관해야 하는지
약한 사람은 왜 더

주간 평가 소감 : Lisa

주간평가가 끝나고 우리 팀이 많이 의기소침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나 역시도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이며 고민들이 많이 생겼었다. 한국 간사님들을 다시 만나고 대화하면서 반가운 마음도 많이 컸었지만 그건 잠시였다.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간사님께 우리의 심정을 이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그건 우리의 활동에까지 드러났었다. 조금씩 기운이 빠지던 찰나였기 때문에 주간평가로 받은 조금의 충격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처음 티모르로 오기 전에 들었던 간사님의 그 충고와 중간 평가에서 들은 충고는 같은 말인데도 왜 여기선 그렇게 더 아프게 들렸을까. 왜 그땐 날 잘 이해해주시는구나,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는 조금 서운하게 들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동안 우리의 그리고 나의 상황도 마음도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우리가 겪은 것들이 처음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 목표를 점점 더 멀게 만들었다. 우리 네 명이 함께 가는 라온아띠. 그 목표는 처음엔 쉬워 보였지만 실은 그리 쉽지 않았다. 오히려 이젠 그 목표를 고집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똑같았던 충고들도 우리를 더 많이 아프고 혼란스럽게 했던 게 아닐까.

포기란 좋지 않은 말이지만, 너무 하나만 보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중간 평가가 끝나고 많이 방황했고, 또 무기력해졌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의 중간 평가는 사실 그날 딱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었다. 중간 평가와, 그 이후에 무기력해져서 여기저기 피해를 줬던 그 시기와, 또 애네가 왜 이러지 걱정하게끔 만들어 전화로 간사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던 그날들까지. 그 모든 시기가 우리의 중간평가였다.

너무 긴 주간평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가 찾아왔다. 전반, 후반을 나누기보단 마무리 직전에 찾아온 주간평가였던 것 같다. 많이 방황하던 우리였으니 이 우여곡절을 겪고 마무리의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한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간평가를 겪으면서 티모르와, 또 우리의 5개월에 내가 어떤 애정과 열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 채찍질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제 다시 센터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하기 싫다고 빼려던 내 모습을 새삼, 반성할 수 있게 되었다.

중간 평가 소감 : Dino

중간 평가에는 간사님 2분이 오셨다. 양동화 간사님과 김일주 간사님이 오셨는데 홈스테이와 겹쳐서 같이 지내지는 못했다. 중간 평가 보고는 간사님들이 오신 다음날 했다. 3개월 동안에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과 각자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인지 느꼈다. 딱히 두드러진 것도 없고 하는 것이라고는 수업 하나인데 그것마저 좋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간 평가 보고 이후에는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다. 김일주 간사님과 면담은 좋지 않았다. 이미 활동하는 것 전반에 걸쳐서 미련이 없었다. 간사님은 산 하나만 넘으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포기하려 하나고 물으셨다. 딱히 와 닿지는 않았다. 이후 양동화 간사님과도 각자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동화 간사님은 버티라고 하셨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버티다가 오는 것도 좋은 거고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돌아오는 것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솔직히 자신은 없다.

Attiklase : Muzika



동요 번역과 '빠빠빠' 춤 위주의 어린이 수업!
아무 음악을 자유롭게 틀고 춤추고 싶은 대로 같이 춤추고 즐기는 청소년 수업!

Attiklase : Joven Ingles



영어 노래 부르기부터, 게임을 이용한 금요일 오전 오후에는 청년 영어 수업을 오전 반은 여학생이 2명 오면서 훈훈한 분위기가(특히 팝송 부를 때) 형성 되었다. 오후 반은 여학생들이 매번 참가하면서 2달간 꾸준히 나오면서 열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Attiklase : Arte



Ki'ik(어린이) 수업의 긍정적인 변화는 수업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자 아이들의 참여가 꾸준해졌다는 것이다. 매일 오전이면 남자 아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센터에 도착해 수업을 기다리고, 과거 수업 파괴자로 악명 높았던 아이들도 요새는 얌전하게 잘 참여하고 있다.

오후 수업엔 매번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한다. 아이들 간 수준 차가 극명하고, 물품 관리가 쉽지 않아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외엔 별다른 문제 없이 수업 진행이 잘 되고 있다.

Bo'ot(청소년) 수업의 경우, 4월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재료의 사용,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ttiklase : Lulun suratahan kor



종이접기는 평소 모든 수업에 성실히, 열심히 참여하는 여자 아이들은 물론 남자 아이들의 참여와 반응도 아주 좋은 수업이다.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 모두 종이접기 수업을 반복해 진행한 덕분인지 3월에 비해 아이들의 종이접기 수준이 월등히 좋아져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종이접기도 가능해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홈스테이



Ivo의 홈스테이



남자 장난꾸러기 아이들 (Fabio, Atito, Edu)



여자 장난꾸러기 아이들 (Osi, Gabi, Ketu, Qidia)



마지막 날 집에서 이별하기 전

350ppm을 기점으로 5월에 되어서 우리와 친해지고 홈스테이 집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서 선정된 Osi 집!! 내가 생활한 Osi 집은 엄마, 아빠, Abe, Osi, Atito, 엄마 형제인 친척 4명이 같이 살고 있다. 총 9명이 집에서 생활하고 지낸다. Osi 집 근처에 가족들이 3가구 모여 사는데 그 중에는 티모르의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급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장관이 사는 집에 가면 에어컨부터 좋은 물건들이 가득하다. 그 집의 아이들과 Osi 집 아이들까지 합쳐서 아이들은 총 7명 정도 된다. 그리고 청소년까지 합친다면 15명은 족히 되는 것 같은 큰 가족이다. 집이 달라서 매일 놀지는 못하고 하루 놀았지만 티모르에서 가족을 만들고 정을 쌓는 방식을 알았던 것 같다.

Ivo의 홈스테이 개인 소감

처음 홈스테이를 한다고 정해졌고 Osi 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350ppm도 같이 했었고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실 Osi는 아띠클라세 제일 처음 시간에 왔었다. 하지만 내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수업을 재미없게 했었나 하는 기억을 하고 있었었다. 그러던 중에 5월에 다시 친구들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내 수업 후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고 Osi에게 애착이 갔었다.

남자 청소년들과 매일 앉아서 한국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면서 지냈었고, 아이들은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익스트림 스포츠로 자전거 타고 묘기부리고 오토바이 타고 묘기 부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공연이 있으면 매번 보러 다니는 친구들이다. 여자 아이들은 내가 홈스테이 하면서 아띠클라세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3명 있었는데 센터에서도 나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귀여운 아이들이다. 센터에 처음 와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과 권력 다툼이 있었고, 내가 그 가운데 끼어서 하루 정도 마음 고생을 했었던 적도 있다. 그리고 대학생이고 노래를 같이 듣고 노트북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더욱더 친해진 청년이 있었다. 또한 연예인 이민호를 너무 좋아하는 고등학생 Abe, 매일 이틀 동안 2~3시간씩 티모르 전통 술도 먹으면서 티모르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던 Abaul 아빠와 Osi 아빠가 있었다. 매번 야채만 먹고 해주는 게 없다고, 화장실은 문도 없고 사용하기 힘들다고 집안의 불만을 은근히 이야기 하는 하지만 그만큼 나를 신경 쓰고 챙겨주고 대접해 주는 Osi 엄마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살면서 마냥 편한 것 만은 아니었다. 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서 인식하는 것이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매일 3달러 정도를 복권에 사용하고 있다. 티모르의 기본적인 월급에 비해 정말 많은 금액을 복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티모르에서 종종 보던 빙고게임도 결국 돈을 걸고 하는 것이고 요즘 남자들끼리 하는 돈을 구멍에 넣으면 따고 아니면 잃는 게임도 전부 사행성이다. 일이 끝나면 아빠는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나라로 치면 로또 번호를 연구하는 사람처럼 복권 번호를 연구하고 쓰고 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를 피면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나의 말도 심지어 의사의 말도 믿지 않고 있다. 주위에서 다 피고 해도 건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티모르에서는 15살 정도 되면 펴도 된다는 것이 인식이 박혀있던 것 같다. 몸이 아프고 담배를 펴서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고 모든 가족들이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주변에서 아이의 얼굴에 서슴없이 연기를 내뿜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술과 담배도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Ivo의 홈스테이 개인 소감

또한 홈스테이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불편한 점은 TV이다 TV를 한국에서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데 바보 상자라는 이유를 나는 주변에서 내가 쉽게 찾지는 못했었다. 오히려 핸드폰이면 핸드폰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전부 TV를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먹는 시간마저 본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바보 상자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TV대신 이야기도 해보고 아이랑 놀기도 하지만 결국 TV로 되돌아 갔었다. 일주일 지내면서 간간히 담배는 아이들 옆에서는 피지 않는 것이 좋다, 복권은 조금만 사고 너무 많은 금액을 쓰지 말고, TV를 보는 것보다 이야기하고 기타치고 노래 부르면서 놀기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래도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들어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들을 해주었을 때 기분이 좋았었다. 아이들과는 사실 매번 놀고 센터에서도 보기 때문에 거리감은 적었지만 청년들 그리고 나아가서 어른들을 만날 때에는 좋게 이야기 한다면 예의가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하루 지나면서 조금 풀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더 풀리게 되었다. 말도 많아지고 이야기 거리도 풍부해 지면서 점점 스며드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완벽히 가족으로 받아 들여진 것은 아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좋은 친구 좋은 친척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았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나에게 대한 대우는 일반 가족과는 조금은 달랐다. 손님 맞이 하듯이 내가 제일 먼저였고 배려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이것이 맞나 싶기도, 내가 너무 겉도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였다. 아쉬운 생각도 있었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당연한 처사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뜬금없이 홈스테이라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래도 달라 보이는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손님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홈스테이 그 이후의 나의 행동과 관심과 생각들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것이 홈스테이라는 명분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제일 감동 받은 점은 한국 음식을 대접한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한 시간 가량 지체되고 결국 기름을 사서 요리를 하게 되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한 닭도리탕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잠에 들려고 누웠다가 Osi 아빠가 늦게 와서 밥을 늦게 먹었는데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우연치 않게 모두 다 들을 수 있었다. Ivo가 요리한다고 진짜 고생했고, 남자인데 요리 잘하더라, 한국요리인데 이거 정말 맛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인데 떼뚱어도 잘하고 좋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4일차에 들었었다. 남에게 내가 듣지 못할 때 하는 칭찬의 힘을 알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잠을 설쳤었다. 마지막 돌아가는 날 그 생각에 Osi 엄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였다. 일주일 살면서 정이 들었고 이별을 실감해서 눈물이 났다. 매일 센터는 오지만 8월에는 진짜 가니까 이 헤어짐이 연습이라 생각 해보자 라고 생각하니 연습이 아닌 진짜 같은 생각에 더욱더 눈물이 났다. "Ivo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면 정말 좋은 인연과 정말 좋은 사람들을 나 또한 만났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

Beti의 홈스테이



Beti의 홈스테이 개인 소감

라온아띠로 선발되기 전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던 탓일까, 홈스테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앞섰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낯선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산다는 것이 내게 그리 쉽고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 않았다.

티모르 Y의 특징일까, 비자트립이 끝나자마자 별다른 예고도 없이 홈스테이가 시작됐다. 엄마, 리카, 레나, 이들의 친척인 헬리나와 미기. 솔직히 처음엔 실망감과 함께 우려와 걱정이 앞섰다. 얇은 판자로 만든 화장실 문 곳곳엔 구멍이 있고, 제대로 잠기지도 않고, 램프가 없어 밤이면 촛불이 필요했다. 자려고 방에 홀로 누우면 쥐와 바퀴벌레가 어김 없이 나타나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세탁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정수가 안 된 물로 요리를 했다. 홈스테이의 목표가 있다면 '아프지만 앓았으면'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내가 겨우 이런 생각만 하며 그들 속에 외롭게 머물도록 두지 않았다. 세심히 내 기분을 살폈고, 행여 이런 환경에 불편하지 않은지 우려하고 미안해했고, 내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려 시종일관 배려했다. 내가 하얀 외국인이기 때문에 갖는 환상과 선호에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 가족 같은 다정함과 편안함에 마음 깊이 감사하고, 마음껏 행복할 수 있었다.

홈스테이 마지막 날,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참 많이, 오래도록 울었다. 엄마와 포옹하면서, 엄마에게 타이즈를 선물 받으면서, 레나에게 내일 또 테라산타에 오니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8월을, "Ate aban(내일 만나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긴 이별을 마침내 실감했던 것 같다. 우리는 서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영영 이별이란 것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슬펐다.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가 만들어 준, 내가 참 좋아해 만드는 법까지 배운 아인 마나스, 리카, 레나와 함께 그림 그리던 밤들, 홈스테이 마지막 날, 엄마와 레나가 챙겨줬던 시원한 물 한 병과 잘 익은 파파야 두 통, 눈물을 참으려던 엄마 얼굴, 이젠 이 방은 누가 쓰냐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끗하게 잘 관리하겠다던 마음까지 예쁜 내 동생 레나.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고, 비록 다시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멀리서나마 이들의 행복을 바랄 것이다.

Lisa의 홈스테이 : 홈스테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마나 미라



마운 시코



베비&페브라



리따



자리아

•Mana Mira (실제 나이는 40대인것으로 추정되나 Lisa에게는 절대 32세라고 속임) :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며, 본인이 동안인 것을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Maun sico : 첫인상과는 다른 매우 자상한 마운. 마운은 출근 때문에 오전과 밤에만 집에 있지만, 그 동안 딸들과 놀아주는 스킬이 매우 뛰어나다.

•Bebi : 리사를 이 집으로 초대한 장본인. 춤을 추는 걸 매우 좋아하고,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즐긴다. 마나 미라와 같은 매우 활발한 성격이다.

•Febra : 얌전한 듯 하지만 장난기가 많은 페브라. 홈스테이 일주일동안 리사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룸메이트!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집에서는 베비를 괴롭히는 걸 가장 좋아한다.

•Lita : 가족들은 멀리 지방에 있어 혼자 딜리로 온 대학생 리따. 시크한 성격이지만 그 덕분인지 도벤(남자친구)가 세 명이나 된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남은 시간엔 모두 도벤과의 전화통화로 시간을 보낸다.

•Ameu : 부엌 옆 남자 방에서 자는 아메우. 집안의 굶은 일은 모두 담당한다. 과묵하지만 듬직한 친구.

+ Jaria : 마나의 외조카. 부모님이 모두 일으로 바빠 낮동안 내내 베비의 집에 있다. 테라산타 최고의 미녀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외모와 애교가 엄청나다.

Lisa의 홈스테이 개인 소감

홈스테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홈스테이가 부담스러웠고 또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가게 될까 많이 걱정했었다. 사실 시설이 어떻다 하는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그것 보단 가족들의 성격은 어떨까, 내가 너무 그 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다.

베비 집 홈스테이가 끝난 지금은 내가 너무 그런걸 걱정했었다 싶다. 가족들은 유쾌했고, 내가 있다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같이 놀고 같이 식사하는 걸 모두 좋아했고 특별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가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마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고 마나의 말들이 조금 씁쓸했지만 나중엔 그냥 마나의 특징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말았다.

마나와 가족들은 나에게 센터활동이 끝나면 꼭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마나 미라의 생일에 맞춰 꼭 다시 홈스테이를 해달라고. 그 말에 많이 감동을 받았지만, 실은 내가 다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정말 고마웠던 것은 진심이다.

내가 돌아가던 날 페브라까지 울먹거리던 그 모습은 정말, 내게는 뜻밖의 너무 소중한 애정들이었다. 나와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던 아메우가 마지막 날 일부러 내 곁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 그리고 내가 돌아가던 날 묵묵히 테라산타를 나갈 때까지 같이 배웅해준 것, 매일 유쾌했던 마나가 눈물을 보였던 것 등등, 정말 난 과분한 정을 받았었고, 소중한 경험을 했다.



Dino의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그냥저냥 이었던 것 같다. 홈스테이 집이 정해지기 전에 이전기수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설마 했던 짐작이 들어맞았다.

나는 Mingas가 지냈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엄마는 나보고 ama말고 mana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ama가 듣기 좋다고 하셨다. 내가 지낼 곳이 홈스테이 전날 저녁에 급히 정해진 것이라 그런지 엄마가 굉장히 미안해 하셨다. 준비를 못했다고 아쉬워하셨다. 첫 날과 둘째 날은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전 기수가 지내던 곳이기 때문에 더 보였던 것 같다. 계속해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친해진 것 같다. 떼뚱어도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더 거리감이 들었던 것 같다.

조금 친해지고 나니 장난도 조금씩 치게 되고 이것 저것 물어보기 하고 그랬다. 넬손이 에르메라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내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 Maun 제카가 에르메라에서 교사를 하는데 우리를 데려가서 아이들과 만나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 Bin 오나는 8월에 어쩌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Bin 아티스가 일이 많다고 투정부리는 것. 나름 재미있었다. 밥은 무조건 3번 먹어야 한다는 넬손 덕분에 항상 많이 먹었던 것 같다. 주말에는 엄마, 떼띠와 함께 한국에서 중보 기도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에 따라다녔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는 같이 성당 미사에 참여했다. 활동적인 것을 하거나 뭐 크게 많은 일들을 하지는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다.

홈스테이 이후에는 수업이 없거나 수업이 일찍 끝나서 쉴 때면 집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다. 꽤나 편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것 같다.

6월의 개인 에세이



Ivo의 에세이

6월의 보고서와 에세이는 정말 쓰기 어려웠던 것 같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고 어디서부터 이야기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쓰면 쓸수록 또한 고쳐서 다른 방식으로 써봐도 내 얼굴에 우리 팀에 침 뱉는, 여기저기에 광고만 하는 꼴이지만 다른 내용을 쓰자니 내가 느낀 것과 너무 먼 내용들뿐이었다. 소진, 지쳤다 라는 표현과도 거리가 있는 심리 상태였다. 보기에는 지치고 소진 된 것도 있었지만 그냥 간단히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상태였다. 활동 때문에 테라산타 마을에서 국제 자원 활동가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혹은 팀을 이루고 혹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내가 생각한 팀원과의 활동과 행동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생각들은 내 자신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남을 배려하기만 보다는 조화와 이해였다. 또한 내가 생각한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들은 당연한 것이고 내 문제 해결 방식이기도 하고 생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생각들의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가지 확실 한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 혹은 해결하고 지내기에 아니면 그냥 지내기에 어떻게 지내기에나 나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시간이 필요 했다는 사실이다.

홈스테이, 중간 평가 이후에 근 6주가 남은 상황이었을 때부터 참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바쁜 일정도 아니었다. 또한 3월, 4월, 5월의 조금씩 변했지만 내 마음 구석에 가지고 있던 동티모르에서 내가 가진 즐거움과 행복한 상태가 아닌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거의 2주 넘게 이러한 상태로 센터를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던 중에 학교에 있는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친구와 복학해서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동티모르 환경상 선불로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대화할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없게 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다. 궁금한 이야기, 내가 좋은 이야기,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기에 모자란 시간과 환경에서 싫어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 옆에 나를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정해졌고 생활하는 시간은 정해 졌는데 이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것들 하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에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도 벅찬 시간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쉬움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 3주가 남게 되었다. 가장 가까이에 팀원들에서부터 테라산타의 사람들까지 모두 생각이 들었다.

아쉬운 점은 숙소에서 팀원들과 활동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야 될 6월이었지만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다. 센터에서는 홈스테이 끝나고 그 후의 계획들, 활동들은 자주 집에 가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지만 행동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숙소에선 팀원들에게 마을의 센터에 가면 Maun Ivo라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달려오던 아이들, 웃으며 장난치던 아이들, 센터에 계신 우디스 간사님한테 까지 3주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3주는 짧게도 길게도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8월3일 당일 무슨 일이나 후회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Beti의 에세이

노트북을 켜다 단 한 문장도 쓰지 못하고 끄기를 벌써 여러 번째. 에세이가 쓰여지지 않는다. 고작 몇 줄의 글에 내가, 우리가 겪은 일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냐고. 그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과연 담아낼 수는 있겠냐고.

중간평가가 끝나고부터 통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은 5분을 겨우 잘 뿐. 캄캄한 방에서, 바람소리뿐인 마당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닌 상태라 식욕도 의욕도 떨어졌다.

굵뚱 행동에, 의미 없는 미소에, 쳐진 어깨에 위로인지 질책인지 모를 말들이 전해져 온다. 사람이 살려면 잠을 자야지 왜 자지 않느냐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라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의미 없는 말을 뱉으면서 그 단순한 걸 몰라서 자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홀로 생각한다. 그런 위로가 위로 받지 못하는 것보다 사람을 외롭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몰라서겠지.

테라산타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기회가 된다면 티모르에 다시 오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 젊은 날 천진한 아이들에 둘러 쌓여 참 많이 사랑 받고 사랑을 주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사람이란 존재는 애초에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선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나 보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툭 던진 말들에도 이리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걸 보면.

그 말들 덕분에 나는 3월의 나, 4월의 나, 5월의 나, 지금의 나를 의심한다. 이곳에 와 진심으로 행복했냐고, 즐거웠냐고, 티모르를, 테라산타를, 테라산타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냐고.

못난 소리일 수 있지만 지금 나는 '라운아띠 이다슬'이 아니라 '사람 이다슬'이고 싶다. 길 가다 만나는 청년마다 툭툭 던지는 농담에 마음껏 기분 나빠 해도 되는 사람, 허구한 날 모여 앉아 수다만 떠는 청년들에게 열심히 좀 살아보지 왜 저러냐고, 저리 해놓고 일자리가 있네 없네 투정만 부린다고 툭 내뱉어도 되는 사람, 무너진 관계에 다 재 탓이라고, 나는 할만큼 했다고 더는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다 안다고, 할만큼 한 거라고, 괜찮다고, 위로 받고 안심해도 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고 싶다.

Beti의 에세이

괜찮아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의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세 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강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 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Lisa의 에세이

다들 그랬겠지만, 이번 달 에세이는 참 쓰고 싶지 않았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들을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는 건지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엔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따지는데 바빴고 그 다음엔 우리의 라온아띠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워하느라 무기력해졌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뭘 해왔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게 허무하다. 그런 감정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에세이가 뭐가 있겠나, 싫어서 처음엔 글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봤던 멋 드러진 문장은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었고 또 그런 멋진 감상평을 남길만큼 내가 많은 것을 느끼지도 못한 것 같다.

정말 다시 되돌아봐도 후회가 없을 만한 그런 4개월이 아니었다는 게 많이 아쉽다. 그렇지만 지나간 것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아쉬워만 하다가는,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는 더 많이 괴로울 뿐이라는 걸 배웠다. 받아들이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나마 내 라온아띠를 덜 후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까지 지나온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은 그 3주라도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양동화 간사님은 전화로 이제 내 라온아띠를 하라고 하셨다. 실제로 나는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잘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까지의 활동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골라서 따라가는 편이었다.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고쳐진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혀서 편히 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내 활동, 내 라온아띠를 생각하려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센터에 나가기로 했다. 남은 3주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대로 활동하기로 했다. 다들 그래서 좋은 모양이지만 사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뭘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모른다는 게 참 말이 안되지만 나는 정말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날 찾는 데에 소홀했던 것 같다. 집중하자. 다시.

Dino의 에세이

6월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비자트립을 비롯해 홈스테이, 중간평가까지.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중간 평가 면담 때 '버티다가 와라'라는 말을 들었다. 한 달 남은 시점에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라는 것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돌아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됐다. 생각 없이 그냥 있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할지 몰랐다.

중간 평가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건 신경도 안 쓰이고 귀찮고 무기력해졌다. 원체 사람이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저 그랬다.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계속해서 요청했다. 그러다가 양동화 간사님에게 많이 혼이 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귀국하는 이기적인 결과는 안만들 것이라 하셨다. 무슨 일이 있던 먼저 돌아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 말하셨다. 3명과 최대한 분리시키고 되도록 혼자 있게끔 하셨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사니 그냥 계속해서 더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인 것 같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다.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동안 한 것도 없고 사람들 악만 받치게 하고 정작 나는 변화하고 싶어 가놓고선 바뀐 게 없다.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어 이곳에 왔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사람이 이기적인 것인지 내 멋대로 한 것 같다. 여기서의 생활이 이제 3주 정도 남았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6월의 사진전









Kyt

HONDA
110

Casimiro deutch

DAL









티모르 딜리팀의 딜리 이야기,

마침.

